

공공도서관 사업계획의 현황과 개선 방향

임유경 부연구위원, 김동희 연구원, 이경재 연구원

요약

- 정부와 지자체가 도서관을 확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주민의 교육·문화 수요가 높아지면서 공공도서관 건립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2014년부터 시행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 도서관 사업계획의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
- 공공도서관 사업계획은 지역 여건과 이용자 수요 반영 미흡, 운영전략 부재, 주변 시설과 연계 및 접근성 고려 부족, 획일적 스페이스프로그램, 건축과 인테리어 통합디자인에 한계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음

정책제안

- 주민의 접근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입지를 선정하고, 기획 단계에 건축 전문가가 참여하여 지역 특성과 사용자 수요, 운영방식을 고려한 설계지침을 제시할 필요
- 복합문화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스페이스프로그램과 면적 비율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외부 공간 조성 비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건축물과 가구, 사인 등 도서관을 이루는 다양한 요소의 디자인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의한 '설계의도 구현' 업무 강화
- 어린이도서관, 작은도서관, 복합시설의 도서관 등 다양한 도서관서비스 전반을 고려한 종합적인 운영·관리 필요

1 공공도서관 건립 관련 정책과 제도 현황

■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종합적인 도서관 정책 추진

- 2006년 10월 「도서관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 지역대표 도서관 설립 등을 규정
-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며, 제1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2013)에 이어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4~2018)을 수립하여 시행 중
-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은 평생학습 지원을 위한 서비스 확대, 국가도서관의 정체성 및 역할 강화, 도서관 기반 확충 및 운영 내실화 등을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있으며, 특히 2018년까지 공공도서관 1,100개관 달성, 인구 45,000명당 도서관 1개관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지자체는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 공공도서관 행정체계 일원화와 협력 네트워크 강화

- 지자체와 교육청으로 이원화된 행정체계를 일원화하여, 정책 일관성 확보와 통합 도서관서비스체계 구축을 유도
 - 영주교육지원청 소속 영주공공도서관과 영주시 소속 영주시립도서관을 통합해도 직속으로 개편하여 개관한 ‘영주선비도서관’은 이용자 중심 도서관 건립의 좋은 사례
- 각 지자체는 기존 시립·도립도서관을 지역 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거나, 대표도서관의 위상과 역할에 맞게 도서관을 별도로 신축하고 있음

전국 대표도서관 현황

구분	지자체
대표도서관 지정(9)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북, 충남, 전북
대표도서관 건립(5)	서울, 인천, 전남, 경남, 제주
건립 중(5)	부산(2018년), 울산(2018년), 충남(2018년), 경북(2018년), 경남(2017년)
건립 준비(2)	대구(2021년 목표), 경기(2021년 목표)

■ 공공도서관 건립 · 운영 매뉴얼 발간 ·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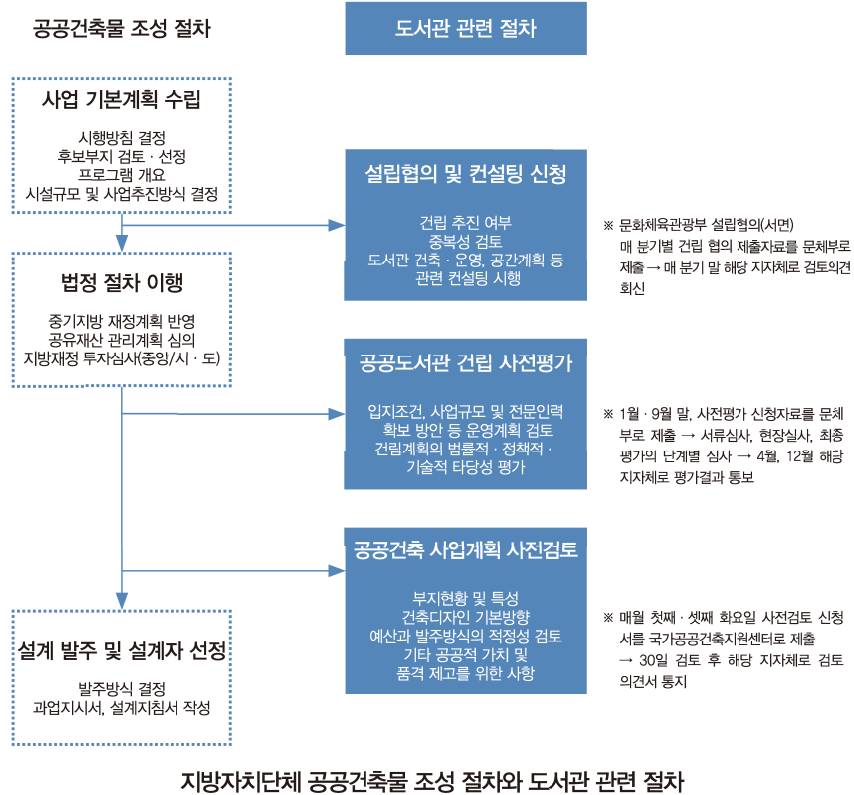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6년 ‘공공도서관 건립 · 운영 매뉴얼’을 개정하여 제로에너지 건축물, 스마트 도서관 구축, 복합문화시설 형태의 도서관 건립을 유도
 - 제로에너지 계획, 통합공간디자인, ICT 솔루션 부분의 내용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현실적인 건립비 제시(314만 원/㎡)
 - 2017년부터 공공도서관 건립 사전평가 시 매뉴얼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는 매뉴얼의 방향에 맞추어 사업을 추진하며 품질 향상을 도모

■ 품질 향상을 위한 도서관 조성 절차 체계화

- 2009년부터 공공도서관 건립 · 운영 컨설팅 시행
 - 신규 건립 예정 공공도서관의 설계 · 시공 · 운영 전반에 대한 전문 컨설팅을 수행
 - 2017년 이후 사전평가제의 평가내용과 방법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컨설팅으로 전환되었고, 도서관 건립계획 지원시스템의 데이터를 활용한 온라인 컨설팅을 병행
- 2017년부터 공공도서관 건립 사전평가제 도입
 - 공공도서관 건립 시 조직 · 인력 · 장서 · 시설 · 운영계획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후 그 결과에 따라 국고보조금(지특회계) 지원 추진(신축 및 리모델링 대상)
 - 2018년 이후의 신축 및 리모델링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지자체의 자체평가 후 문화체육관광부로 사전평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계 전문가 3~9인 이내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심사(서류심사, 현장실사, 최종평가)를 수행
- 2014년부터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도입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사업 특성과 건축물의 기능에 맞는 우수한 디자인의 공공건축 설계와 시공을 유도
 - 공공건축지원센터는 부지현황 및 특성, 건축디자인 기본방향, 예산과 발주방식의 적정성, 기타 공공적 가치 및 품격제고를 위한 사항 검토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주요 내용

구분	사전검토 주요 내용
사업개요	–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일정계획, 대상부지 – 기타 사업추진 시 예상 문제점
건축디자인 기본방향	– 배치계획, 규모, 공간 및 시설계획의 주안점 –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 품격제고 방안 등
예산	– 예산수립 현황, 재원조달 및 집행계획
디자인 관리방안	– 발주방식, 디자인관리체계의 적정성 등



- 사전평가제와 사전검토 간 절차 이행순서에 관해 명시된 규정은 없으나, 사전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 가능 여부가 결정되므로 일반적으로 사전평가 후 사전검토를 신청

2 공공도서관 사업계획 사전검토 수행 현황과 주요 의견

■ 전국 공공도서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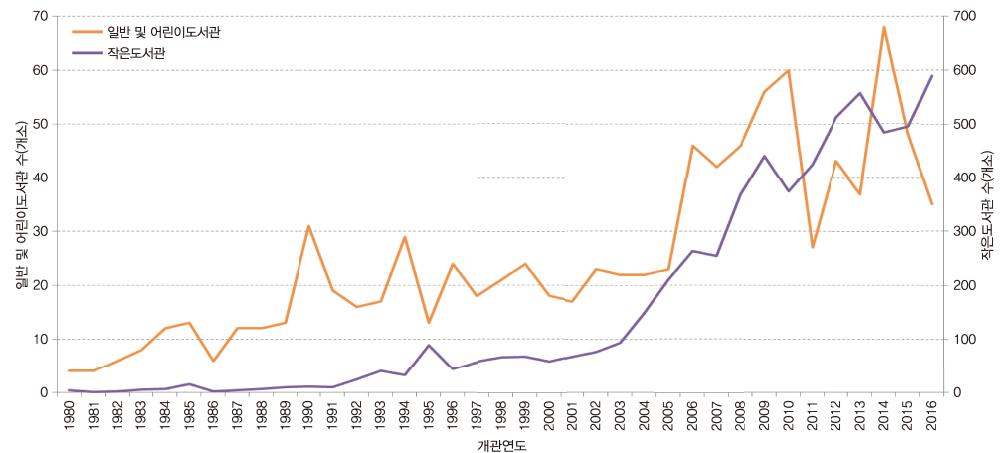
- 전국 공공도서관¹⁾은 매년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
 - 전국 일반 및 어린이도서관의 23%(231개관), 작은도서관의 45%(2,638개관)가 최근 5년 이내에 개관했을 만큼 최근 들어 공공도서관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822개관(2012년) → 859개관(2013년) → 927개관(2014년) → 975개관(2015년) → 1,010개관(2016년)

1) 「도서관법」 제2조에 따르면 도서관은 공공도서관·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전문도서관으로 구분되며, 공공도서관은 다시 일반도서관·어린이도서관·작은도서관·장애인도서관·병영도서관·교도소도서관으로 분류됨. 공공도서관의 세 분류 중 불특정 다수의 정보 이용, 독서 및 문화활동,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작은도서관으로 한정하여 살펴봄.

개관연도	종류	일반 및 어린이도서관		작은도서관	
		개관	연평균 개관	개관	연평균 개관
1980년 이전		75	—	—	—
1980 ~ 1989년		90	9.0	58	5.8
1990 ~ 1999년		212	21.2	438	43.8
2000 ~ 2009년		315	31.5	1,981	198.1
2010 ~ 2016년		318	45.4	3,437	491.0
계		1,010		5,914	

※ 주 : 2016년 12월 기준

※ 출처 :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www.libsta.go.kr)



1980~2016년 일반 및 어린이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개소 추이

-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4~2018)에 따르면 2018년까지 공공도서관 1,100개 관으로 확충하여 봉사대상인구 4.5만 명당 1관 수준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므로, 도서관은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

공공도서관 확충 계획

기준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도서관 수	900	950	1,000	1,050	1,100

※ 출처 :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4~2018),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공공도서관 사업계획 사전검토 수행 현황

- 사업계획 사전검토(공공도서관) 월 평균 0.7건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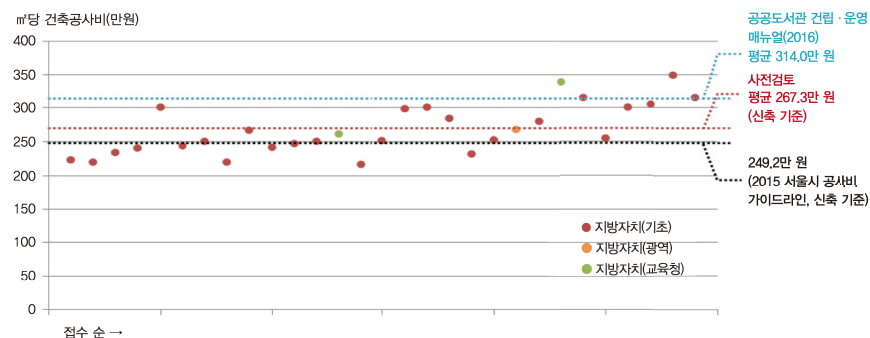
- 사전검토가 시작된 2014년 6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사전검토를 완료한 사업은 39 건이며, 이 중 대학도서관 및 공공기관(10건)은 공공도서관이 아니므로 제외하고 살펴봄

- 공공도서관의 사전검토 신청기관은 대부분 기초지자체(89.7%)였으며, 발주방식이 PQ인 사업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설계공모방식 우선 적용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신청한 사례임
-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완료한 공공도서관의 총 사업비는 절반 이상이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이며, 설계비는 4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이 12건(41.4%)으로 가장 많음

기관유형	건수(비율)	설계발주 방식	건수(비율)
광역지방자치단체	1(3.4%)	일반설계공모	20(69.0%)
기초지방자치단체	26(89.7%)	제안공모	6(20.7%)
교육청	2(6.9%)	제한공모	1(3.4%)
		PQ	2(6.9%)
총 사업비	건수(비율)	설계용역비	건수(비율)
50억 원 미만	1(3.4%)	2억 원 미만	2(6.9%)
50 ~ 100억 원	16(55.2%)	2 ~ 4억 원	8(27.6%)
100 ~ 150억 원	7(24.1%)	4 ~ 6억 원	12(41.4%)
150 ~ 200억 원	3(10.3%)	6 ~ 8억 원	3(10.3%)
200 ~ 300억 원	1(3.4%)	8 ~ 10억 원	1(3.4%)
300억 원 이상	1(3.4%)	10억 원 이상	3(10.3%)

• 해마다 단위면적(㎡)당 공사비 상승

- 사업계획 사전검토에 접수되는 공공도서관 사업의 단위면적(㎡)당 공사비는 225.3만 원/㎡(2014년)에서 297.7만 원/㎡(2017년)으로 해마다 상승하고 있으며, 2017년 하반기에 접수된 도서관 신축공사비는 평균 307.1만 원/㎡으로 나타남
-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행한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2016)에 따르면 공공도서관의 공사비는 314.0만 원/㎡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사전검토에 접수되는 사업들의 단위면적당 공사비도 상승



사전검토 수행 도서관(신축) 평균 공사비

■ 공공도서관 사업계획 사전검토 주요 의견

• 사전검토 항목별 주요 의견

- 세부 검토항목 중 중요한 사항을 요약한 ‘주요 검토의견(갑지)’을 7개 항목(수요, 입지, 예산, 일정, 제도, 설계방향, 사업관리)으로 구분했을 때, 입지(29.9%)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으며, 수요 및 사업관리(17.2%), 수요(17.1%), 설계방향(11.5%), 예산(10.3%) 순으로 나타남

검토항목	의견 수	검토항목	의견 수
수요	15(17.2%)	제도	8(9.2%)
입지	26(29.9%)	설계방향	10(11.5%)
예산	9(10.3%)	사업관리	15(17.2%)
일정	4(4.6%)	계	87(100.0%)

• (입지) 주변 지역과의 관계, 접근성 확보방안 검토

- 주변 부지 및 시설과의 상호 연계를 고려한 부지활용계획과 외부에서 도서관으로의 접근성 확보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

• (수요 및 사업관리) 주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한 운영계획 수립 권고

-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특화 방안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건축계획에 반영할 것을 권고

• (설계방향) 공용면적비 최소 30% 이상 확보 필요

- 공용면적비 추가 확보 의견을 받은 사업의 평균 공용면적비는 25.3%였으며, 이들에게 공용면적 비율을 30% 이상 확보하도록 권장함

• (예산) 건축공사비 및 설계비 증가 필요

- 사전검토를 완료한 사업 중 건축공사비 증액을 요하는 사업은 전체의 27.7%이며, 증액 권고 요인은 실내건축공사(인테리어)와 구분 필요, 제로에너지 및 ICT기반 스마트도서관,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적용에 따른 요율 추가 산정 등임
- 설계비 증액을 요하는 사업은 전체의 45.5%이며, 제로에너지, 패시브하우스 성능 구현을 위해 특수설비를 요하므로 3종(복잡)상급을 권장, 각종 인증 취득을 고려한 설계비 재산정 등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일정) 적정한 사업기간은 공모기간 3개월, 설계기간 7개월, 공사기간 16개월
 - 사업의 규모, 제반 여건에 따라 적정한 사업일정은 다르나, 공모기간 3개월, 설계기간 7개월, 공사기간 16개월을 적정한 사업기간으로 제시함

3 공공도서관 사업계획의 특성과 문제

■ 지역 여건과 이용자 수요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고 운영계획 미흡

- (지역 중심 공간으로서 공공도서관) 정부와 지자체의 공공도서관 확충 정책에 따라 기존 도시지역과 신규 택지개발지구에 공공도서관 신축
 - 전체 29건 중 14건은 기존 도시지역에 위치하며, 15건은 택지개발지구의 공동주택 단지 또는 학교 인근에 위치함. 주민 생활공간, 학생 등하교 동선 인근에 위치하여 지역 중심공간으로 역할 증대
- (지역 여건과 이용자 수요 파악 부족) 봉사대상인구수 기준에 의존하여 수요를 추정하고 이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고려 없이 프로그램을 결정
 - 대상 지역 인구의 연령, 직업 등 인구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봉사대상인구수 기준²⁾으로 도서관 건립 여부와 규모를 결정함

예시. 00시 00도서관 건립(2015) 수요추정

- 봉사대상인구수 : 00동 현재 인구 39,000명 + 도시계획인구 13,000명
- 도서관 연면적 : 봉사대상인구수 × 60㎡ = 3,120

봉사대상인구수	2만 이하	4만	6만	8만	10만	20만 이상
면적(㎡/1,000명)	70	65	60	55	50	40
비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문화교육영역 면적 할증 도시 및 도농지역 20%, 농·산·어촌 읍면 지역 30%					

※ 출처 : 봉사대상인구수에 의한 공간운영기준 면적,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 2016

- 설문조사, 공청회 등 주민의 수요조사를 실시한 사업은 20.7%(6건)에 그치는 등 기획 단계에서 이용자 의견 수렴이 미흡함
- (운영 조직 및 프로그램 계획 미흡) 복지시설 등 다른 공공시설에 비해 지자체 직영 비율이 높지만, 차별화된 운영 전략과 구체적인 운영계획 부재

2) 시군별 인구 45,000명 당 1개관 확충 장려(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 29개 사업 중 27개 사업(93.1%)이 지자체 직영으로 운영할 예정이어서 기획 담당 부서의 의지에 따라 구체적인 운영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투자심사 통과나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위해 형식적으로 운영계획을 수립

예시. OO시 OO도서관 신축(2015) 공공시설 운영계획서

- 기구 및 조직: OO도서관 내 OO도서관팀 신설

조직 및 인력계획

팀명	주요업무	계획인원
OO 도서관	자료실(유아·어린이, 일반·멀티미디어)운영, 다양한 신간 자료 수서정리 등	4명(팀장 포함)
	문화행사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동아리실, 노트북실 등 운영	2명
	서무, 회계, 시설물 유지관리, 건물방호 및 경비, 동아리실, 휴게실, 노트북실 등 운영	2명

- 세부시설운영계획

· 이용대상 : 영유아부터 모든 주민 연인원 300,000명 (일평균 1,000명)

· 운영시간(※ 월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관)

· 자료실(학습실) 운영(매주 화~일요일 / 화~금요일 9:00~22:00 / 토· 일요일 9:00~18:00)

* 문화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 이용자 안내 및 건물방호(경비) 등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 주변 시설과 연계 및 접근성 고려 부족

- (공공시설 또는 근린공원 인근에 위치) 신규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공공시설이 집적되어 있는 부지 또는 근린공원 내에 건립되는 경우가 많고, 기존 도시지역에서는 공공청사 부지의 일부 또는 이전적지를 활용하여 증축되는 경우가 많음
- (주변 지역 여건과 주민의 접근성 고려 미흡) 시설 배치, 외부공간, 동선, 주차장, 프로그램 계획 시 주변 시설 연계 및 주민의 접근성에 대한 고려 미흡
 - 인근 지역 주민의 접근성보다 차량을 이용하는 목적형 방문자를 중심으로 주차장 및 동선 계획 방향을 설정

■ 복합문화공간 구현에 한계 : 용도 분류, 스페이스프로그램, 공용공간 비율

- (문화교육 공간 확대 경향) 29개 사업 중 6개(20.7%) 사업에서만 열람실을 계획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업에서 문화교육 공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사전검토 신청 사업의 공간구성요소별 면적 비율은 대체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2013 제정, 2016 개정)’의 기준과 유사하나, 복합문화공간 구현을 목표로 하는 일부 도서관³⁾의 경우 문화교육부분의 면적비율(약 41%)이 기준(15.5~21.0%)보다 20% 정도 높게 나타남

3) oo지역 도서관 및 문화센터 건립공사(45.7%), 0000 문화누리관 조성사업(43.7%), 0000 도서관 건립사업(35.2%)

- (복합문화공간 구현에 한계 요인 상존) 공공도서관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사업에서는 경직된 스페이스프로그램을 제시하거나 공용공간의 비율을 과소하게 책정하여 복합문화공간을 구현하는 데 한계
 - 일부 지자체는 인식 부족으로 공용면적 비율을 최소 기준으로 배분하고 있으며, 전체 층수를 제한하고 층별 프로그램을 규정하는 등 경직된 스페이스프로그램 제시
 - 공공도서관은 「건축법」상 교육연구시설에 해당하여 실제 이용 특성과 차이 발생

사전검토 수행 공공도서관(지방자치단체) 공간구성요소별 면적비율

공간구성요소	사전검토 수행 도서관 평균	면적비율	
		공공도서관 건립 · 운영 매뉴얼(2016) 기준	
		지역중앙관 (3,500㎡ 이상)	분관 (1,500~3,500㎡)
자료이용부분	39.7%	34.7~36.7%	38.7~46.7%
업무관리부분	12.9%	13.6~15.6%	9.8~14.3%
문화교육부분	19.5%	20.5~21.0%	15.5~18.5%
공용부분	22.9%	28.2~28.7%	28.0~28.5%
기타부분	4.9%	5~6%	5~6%

■ 부지 여건 등 사업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예산 계획 어려움

- (이용자의 접근 및 휴게 공간으로서 외부공간 중요) 공공도서관의 기능이 다변화 하면서 이용자가 편하고 안전하게 접근하고 휴식을 취하는 공간으로서 외부공간의 중요성이 증대됨
 - 특히 공공도서관은 공공청사 부지 또는 근린공원에 입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접 시설의 외부공간과 연계가 중요하며, 보행자와 교통 약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쾌적한 외부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해짐
- (쾌적한 외부공간 조성, 단차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예산 부족) 건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공사비를 산출하여 부지 조성 공사비는 누락되는 경우가 많음

■ 건축과 인테리어 통합 설계 및 시공 어려움

- (건축계획과 서가 등 인테리어디자인 통합 중요) 공공도서관에 설치되는 서가, 책상, 의자, 대출 · 반납 기기 등은 건축물과 통합적으로 디자인할 필요
- (예산 집행 및 발주 방식에 한계) 인테리어를 공사로만 인식하여 디자인 비용을 별도로 확보하기 어렵고 건물 준공 후에 자산취득비로 별도 매입

- 서가와 집기류는 일반적으로 준공 후 자산취득비(별도 재원으로 충당)로 확보하여 집행하는 지자체가 많아 인테리어 디자인 비용 확보가 어렵고 가구 설치 과정에서 건축가의 설계 의도가 왜곡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
- 건축과 인테리어 통합 디자인을 강조하여 설계공모 시 건축과 인테리어 업체의 컨소시엄 구성을 강제할 경우⁴⁾, 다양한 설계안을 제출받아 당선작을 선정하는 데 한계

■ 다양한 도서관 유형을 고려한 종합적 수요 예측 어려움

- (다양한 유형의 도서관 설립 경향) 최근 공공시설의 복합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복합커뮤니티센터와 행정복지센터 등의 복합시설에는 대부분 도서관이 계획되고 있음
- (공공도서관의 수요 예측에 어려움) 국가 및 지자체가 수립하는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은 독립 건물로 건립되는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수립하기 때문에 복합시설에 산재된 도서관 시설을 고려한 종합적인 수요 예측이 어려움

4 좋은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한 제언

■ 지역 주민의 접근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입지 선정

- 도서관의 양적 확충에 치중하기보다 지역 주민이 편하고 안전하게 자주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공공도서관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
- 입지 선정 시 서비스 권역 인구, 대중교통 인접 정도, 보행 편의, 교통 안전 등 주민의 접근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

■ 지역 특성과 사용자 수요, 운영 방식을 고려한 기획 필요

- 공공도서관이 지역공동체 중심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기획 단계에서 지역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기획 단계, 즉 설계공모 이전 단계에 건축전문가가 개입하여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계획의 지향점을 설정하고 스페이스프로그램을 제시할 필요

4) 문화체육관광부의 '제로에너지 도서관 적용 기본지침서(2017)'에는 설계공모 시 건축과 인테리어 업체의 컨소시엄을 구성할 것을 규정

■ 다기능 문화공간의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스페이스프로그램

- 자료 이용, 문화 교육, 업무 관리 등의 영역별 구분, 전용·공용 공간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공간을 통합적으로 계획·운영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 층별 기능 구분, 실별 구획을 지양하고 스페이스프로그램과 면적 비율을 보다 유연하게 제시할 필요

■ 외부공간의 조경 및 토목 공사 비용을 반영한 사업비 책정

- 공공도서관은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접근과 이동 편의, 휴식 기능을 고려하여 외부공간을 쾌적하게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
- 도서관의 입지와 지형, 대지 면적, 인접 대지 상황에 따라 외부공간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이 달라지므로 부지 특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

■ 건축과 인테리어의 통합 디자인을 위한 제도 개선

- 도서관 건축에서 인테리어, 사인 디자인, 가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들의 통합 디자인을 위한 과업 범위를 규정하고 용역 수행을 위한 예산을 편성할 필요
- 건축물 전체 디자인 개념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의한 ‘설계의도 구현’ 업무를 강화할 필요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서관 관리 정책과 DB 구축

- 도서관은 지역의 다양한 공공서비스 네트워크를 이루는 요소임
- 어린이도서관, 작은도서관, 복합시설의 도서관 등 공공도서관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도서관서비스 전반을 고려한 종합적인 운영·관리 정책과 DB 구축·운영 필요

임유경 부연구위원 (044-417-9615, yklim@auri.re.kr)

김동희 연구원 (044-417-9684, dhkim@auri.re.kr)

이경재 연구원 (044-417-9863, kjaelee@auri.re.kr)

(a u r i)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발행처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발행인 김대익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7층

전화 044-417-9600 팩스 044-417-9607 www.auri.re.kr

